

미 증시, 월가 구루들의 발언 평가에 혼조세 마감

김석환 seokhwan.kim@miraeasset.com

미 증시 동향: 월가 구루 발언

•미 증시는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재차 5%를 상회하자 매도 압력이 커지며, S&P 500 지수는 지난 6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. 그러나 빌 애크먼, 빌 그로스 등 월가 구루들의 발언 및 매매 포지션 영향으로 국채수익률이 4.8% 초반까지 하락하며 증시 반전하기도. 그러나 그들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많은 리스크(too much risk), 4분기 경기침체(Recession is 4th quarter) 등 증시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이었던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을 반영하며 상승폭 축소 후 보합권에서 마감. 이 날 국제유가는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증가와 중동 지정학적 불안 해소를 위한 다자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2% 넘게 하락. (다우 -0.58%, 나스닥 +0.27%, S&P500 -0.17%, 러셀2000 -0.8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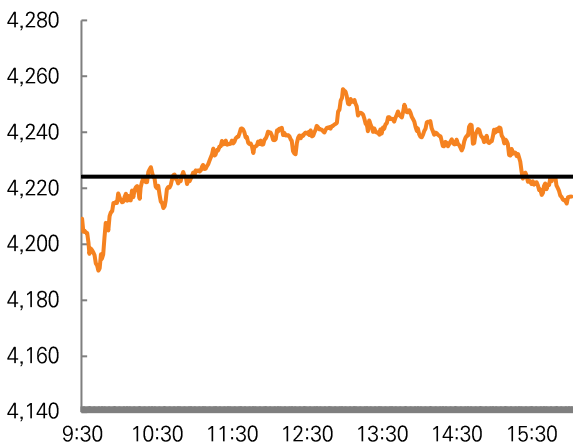
특징 종목: 암호화폐株 강세

•S&P 500의 주요 섹터 중 시가총액 비중이 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(+0.72%), IT(+0.42%), 경기소비재(+0.21%)가 상승하고 에너지(-1.62%), 소재(-1.07%) 등은 하락. 최근 4거래일 동안 10% 넘게 하락했던 엔비디아(+3.69%)는 ARM(+4.89%)의 기술을 활용해 PC용 CPU를 만든다는 소식에 상승. 반면 인텔(-3.06%), AMD(-1.77%)은 하락.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회복하며 3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자 코인베이스(+3.42%), 마라톤디지털(+12.76%) 등 암호화폐 관련주 강세. 반면 세브론(-3.69%)은 유가 하락과 헤스(-1.06%)를 주당 171달러, 총 53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소식에 약세.

한국 증시 전망: 매수 but 관망

•MSCI 한국 지수 ETF는 0.40% 상승, MSCI 신흥 지수 ETF는 0.08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341.63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/원 환율은 13원 하락 출발 예상. Eurex KOSPI200 선물은 0.28% 상승. KOSPI는 0.2~0.4%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 국내 투자자들의 수급 악화 이슈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높아. 최근 미수금 잔고와 반대매매가 급증하였기 때문. 다만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달러인덱스와 미 국채 수익률 하락 여파로 반발 매수세 유입될 것으로 예상. 그러나 美 빅테크 실적 및 GDP 발표 앞두고 관망심리 확산 예상

S&P500 일중 차트

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Global Indices

지수등락률	Close	D-1(%)	지수등락률	Close	D-1(%)
KOSPI	2,357.02	-0.76	상해종합	2,939.29	-1.47
KOSDAQ	763.69	-0.72	홍콩항셱	17,172.13	-0.72
DOW	32,936.41	-0.58	인도센섹스	64,571.88	-1.26
NASDAQ	13,018.33	+0.27	유로스톡스 50	4,041.75	+0.42
S&P 500	4,217.04	-0.17	영국	7,374.83	-0.37
캐나다	19,046.74	-0.36	독일	14,800.72	+0.02
일본	30,999.55	-0.83	프랑스	6,850.47	+0.50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
 변화 요인

월가 구루(guru)

미 증시는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재차 5%를 상회하자 매도 압력이 커지며, S&P 500 지수는 지난 6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. 그러나 빌 애크먼, 빌 그로스 등 월가 구루들의 발언 및 매매 포지션 영향으로 국채수익률이 4.8% 초반까지 하락하며 증시 반전하기도. 그러나 그들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많은 리스크(too much risk), 4분기 경기침체(Recession is 4th quarter) 등 증시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이었던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문에 대한 가격을 반영하며 상승폭 축소 후 보험권에서 마감. 이 날 국제유가는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증가와 중동 지정학적 불안 해소를 위한 다자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2% 넘게 하락.

월가 구루(guru)들의 발언

지난 금요일(20일), 중장기 추세의 주요 전환 기준으로 여겨지는 200일 이동평균선(4,233p)을 하회한 S&P 500 지수는 장 초반 매도압력이 지속되며 지난 6월 1일 이후 가장 낮은 4,189p를 기록. 매도세를 촉발시킨 요인 중 하나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재차 5%를 돌파하며 증시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. 그러나 빌 애크먼(Bill Ackman), 핼코(PIMCO)의 공동창업자인 빌 그로스(Bill Gross) 등 월가의 구루로 불리는 이들이 국채수익률 하락에 기여하며 증시는 장 초반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 반전하기도. 그러나 그들의 논평에 대한 시장 평가가 이뤄지며 상승폭 축소 후 혼조세로 마감.

퍼싱스퀘어(Pershing Square) 창업자인 빌 애크먼은 “(장기) 채권 매도를 커버했다(We covered our bond short.)”고 밝혀. 그는 지난 9월 말,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5%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며, 동시에 30년물은 매도(short)했다고 밝혀. 그러나 그는 현재의 포지션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다면서 경제는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밝혀. 결국 매크로 환경 악화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향후 증시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 배제 못 해.

또한 **핼코(PIMCO)의 공동창업자이자 ‘채권왕’으로 불린 빌 그로스**는 “4분기 경기침체” 예상된다면서, 올 연말에는 장단기금리차가 정상화(positive) 될 것으로 전망. 특히 지역은행 파괴와 최근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역사적 최고치로 증가한 것은 미국 경제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해. 과거 역전되었던 장단기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동시에 발생한 두 가지는 1) 침체(recession)와 2) 연준의 금리인하(pivot). 결국 침체가 발생해야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고, 이로 인해 연준의 통화정책을 반영하는 2년물 국채수익률이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장단기금리차 역전이 빠르게 정상화될 거란 의미. 이 역시 향후 증시의 (하방)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와.

째깍째깍, 시한폭탄 같은 중동 정세

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로 발생한 중동정세 불안이 더 확산되는 걸 막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, 물밑에서는 갈등의 깊이가 더 커져가는 모습. 주말사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였고, 이로 인해 이란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어질 가능성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. 이에 미국은 이란이 지역 내 갈등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. 시장은 이란 개입으로 이스라엘-하마스 간 무력충돌이 확산되는 경우를 ‘최악의 시나리오’로 가정하고 있음.

주요 업종 및
종목 동향

암호화폐 관련株 강세

S&P 500의 주요 섹터 중 시가총액 비중이 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(+0.72%), IT(+0.42%), 경기소비재(+0.21%)가 상승하고 에너지(-1.62%), 소재(-1.07%) 등은 하락. 최근 4거래일 동안 10% 넘게 하락했던 엔비디아(+3.69%)는 ARM(+4.89%)의 기술을 활용해 PC용 CPU를 만든다는 소식에 상승. 반면 인텔(-3.06%), AMD(-1.77%)은 하락. 월그린부츠(+3.29%)는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, 핀터레스트(+2.62%)는 스티펠이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, 스피릿에어로시스템즈(+2.33%)는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, MGM(+3.94%)은 HSBC에서 매수로 커버리지를 시작하자 상승. 인게이지스마트(+11.88%)는 사모펀드 Vista Equity Partners가 주당 23달러, 총 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강세.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회복하며 3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자 코인베이스(+3.42%), 마라톤디지털(+12.76%) 등 암호화폐 관련주 강세.

반면 세브론(-3.69%)은 유가 하락과 헤스(-1.06%)를 주당 171달러, 총 53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소식에 약세. 옥타(-8.14%)는 지난 주 해커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후 하락세 지속. 씨티와 에버코에SI 등은 단기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혀. 울트라클린홀딩스(-6.18%)는 이전 가이드نس보다 낮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52주 신저가를 기록. 또한 FMC(-13.19%)는 시장 예상보다 낮은 3분기 매출 가이드نس와 4분기 매출 전망 하향이 주가 낙폭 확대.

상품 및
FX시장 동향

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

지난 11일 연중 최저치인 26,533달러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당시 가격보다 19% 이상 상승한 3만 1,740달러^{*오전 5시 30분, 한국시각 기준}를 기록하며 전일 동시간 대비 5.7%나 상승. 이는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실물 금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희소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. 또한 지난 주 오보 해프닝이 있던 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했다는 것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.

장 초반 5%를 상회했던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매크로 환경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일대비 7bp 하락한 4.84% 기록. 이로 인해 장단기금리차는 전일 -16bp에서 -20bp로 소폭 확대됐으나 지난 해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. 달러인덱스 역시 이번 주 ECB통화정책회(26일)와 다음 주 BOJ통화정책회의(30~31일)에 대한 경계심으로 한 달래 최저를 기록.

한국
주식시장 전망

매수 but 관망심리 ↑

MSCI 한국 지수 ETF는 0.40% 상승, MSCI 신흥 지수 ETF는 0.08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341.63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/원 환율은 13원 하락 출발 예상. Eurex KOSPI200 선물은 0.28% 상승. KOSPI는 0.2~0.4%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

국내 투자자들의 수급 악화 이슈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높아. 최근 미수금 잔고와 반대매매가 급증하였기 때문. 다만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달러인덱스와 미 국채 수익률 하락 여파로 반발 매수세 유입될 것으로 예상. 그러나 美 빅테크 실적 및 GDP 발표 앞두고 관망심리 확산 예



상

에너지 ETF 약세

주요 ETF			
ETF 종류	등락률(%)	ETF 종류	등락률(%)
원유시추업체 ETF (XOP)	-1.46	대형 가치주 ETF (IVE)	-0.32
클린테크 ETF (CTEC)	-1.38	중형 가치주 ETF (IWS)	-0.81
소매업체 ETF (XLY)	+0.12	소형 가치주 ETF (IWN)	-0.90
온라인소매 ETF (EBIZ)	+0.18	대형 성장주 ETF (VUG)	+0.32
미국 인프라 ETF (PAVE)	-0.59	중형 성장주 ETF (IWP)	-0.39
핀테크 ETF (FINX)	+0.20	소형 성장주 ETF (IWO)	-0.80
소셜미디어 업체 ETF (SOCL)	+0.06	퀄리티 배당주 ETF (QDIV)	-0.47
클라우드 ETF (CLOU)	-0.61	신흥국 고배당 ETF (SDEM)	+0.12
사이버보안 ETF (BUG)	-0.47	신흥국 저변동 ETF (EEMV)	-0.35
전기차&자율주행 ETF (DRIV)	-0.93	미국 국채 ETF (IEF)	+0.48
글로벌 2차전지 ETF (LIT)	-0.96	하이일드 ETF (JNK)	+0.41
바이오섹터 ETF (IBB)	-0.98	신흥국 채권 ETF (EMBD)	+0.20
로봇&AI ETF (BOTZ)	+0.43	물가연동채 ETF (TIP)	+0.02
반도체 ETF (SMH)	+0.35	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(LQD)	+0.78

US Sector Index				
S&P 500	Close	D-1(%)	D-5(%)	D-20(%)
커뮤니케이션	228.90	+0.72	-1.28	+3.00
IT	2,914.17	+0.42	-3.66	+0.21
경기소비재	1,198.95	+0.21	-5.80	-5.40
필수소비재	708.88	-0.27	-0.53	-4.58
산업재	831.32	-0.46	-4.45	-3.52
헬스케어	1,482.61	-0.63	-2.98	-2.34
유틸리티	292.20	-0.82	-3.93	-9.16
부동산	203.59	-0.84	-6.40	-6.29
금융	531.24	-0.86	-4.73	-5.31
소재	468.88	-1.07	-4.94	-5.03
에너지	679.91	-1.62	-1.60	-0.81

글로벌 FICC 동향							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85.49	-2.21	+1.02	Dollar Index	105.608	-0.52	-0.60
브렌트유	89.83	-1.82	+0.93	EUR/USD	1.0668	+0.70	+1.02
천연가스	2.93	+0.72	-6.08	USD/JPY	149.72	-0.09	+0.14
금	1,987.80	-0.49	+2.61	GBP/USD	1.2246	+0.67	+0.24
은	23.21	-1.59	+1.60	USD/CHF	0.8910	-0.12	-1.00
알루미늄	2,176.00	-0.25	-0.21	AUD/USD	0.6335	+0.33	-0.11
전기동	7,972.00	+0.30	-0.06	USD/CAD	1.3692	-0.17	+0.60
아연	2,420.00	-0.74	-1.06	USD/RUB	94.5628	-1.19	-2.99
옥수수	490.25	-0.96	+0.15	USD/BRL	5.0134	-0.42	-0.55
밀	587.25	+0.13	+1.65	USD/CNH	7.3101	-0.23	+0.02
대두	1,305.50	-1.10	0.00	USD/KRW	1,353.70	+0.10	0.00
커피	165.85	+0.36	+7.59	USD/KRW NDF1M	1,341.63	-0.49	-0.33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4.848	-6.56	+14.21	스페인	3.967	-3.40	+6.30
한국	4.375	+5.80	+17.80	포르투갈	3.582	-2.70	+6.80
일본	0.877	+3.50	+11.60	그리스	4.292	-8.10	-3.00
독일	2.874	-1.50	+8.90	이탈리아	4.840	-8.50	+7.60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